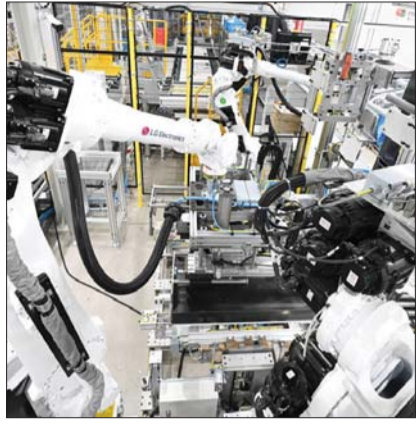


# LG전자, 스마트팩토리 사업 본격화

구축 기술 등 무형자산 사업화  
美 물류 전시회에 솔루션 전시  
글로벌 파트너 기술협력 모색



LG전자 창원 스마트파크 자동화 공정.

LG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LG전자는 올 초 생산기술원 내에 '스마트팩토리사업담당'을 신설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 기술과 운영 솔루션 등 무형자산을 사업화했다. LG전자는 이러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물류 전시회 '모덱스(Modex) 2024'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LG전자 스마트팩토리 사업은 생산 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자동화 생산 솔루션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의 생산 계획 및, 운영, 디지털 트윈 솔루션 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고객이 공장을 기획하는 단계

부터 공장 설계-구축-운영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자동화·정보화·지능화 관점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지원한다. 또 공장 업그레이드 차원의 지속적인 개선 컨설팅도 제공한다.

LG전자는 B2B 분야의 한 축으로 올해 스마트팩토리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LG전자는 2030년 매출 100조원 기

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B2B 매출을 40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전자는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제조 노하우 ▲우수한 공법 및 장비 ▲통신 기술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생활가전부터 공조 설비, TV, 전장, 로봇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풍부한 제조 역량을 갖췄으며,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사전 품질 예측 시스템 등도 구축할 수 있다.

LG전자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5일 LS일렉트릭과 '스마트팩토리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및 상호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다수의 글로벌 파트너들과 스마트팩토리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D, '8.6세대 IT OLED' 설비 확충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 구축하는 8.6세대 IT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라인 투자를 본격화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8일 충남 아산캠퍼스에서 8.6세대 IT OLED 라인을 구축하는 'A6라인 설비반입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왼쪽부터) 유환규 이루자 사장, 안태혁 원익IPS 사장, 오홍식 엘오티베콤 사장, 이도 히로유키 캐논도키 사장, 홍성천 파인애플 회장, 최준선 사장, 이청 부사장(중소형사업부장), 문성준 HBT 사장, 이송호 아이씨디 사장, 이병준 부사장(경영지원실장), 김경한 부사장(IT기술팀장)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 현대차그룹, 美·英서 전기차 경쟁력 입증

EV9 '2024 英 올해의 차'  
아이오닉5 '美 최고의 가정용 차'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EV) 아이오닉5와 EV9이 미국과 영국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두 모델은 현대차·기아의 주력 모델인 만큼 지난해 판매 부진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글로벌 순위가 7위에서 9위로 하락했다.

1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아 EV9이 8일(현지시간) 유럽 친환경차 격전지인 영국에서 '2024 영국 올해의 차'에 최종 선정됐다. 영국 올해의 차는 매년 ▲탑기어 ▲카 ▲오토카 등 영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전문 기자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단 30명이 12개월 이내 출시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심사와 투표를 진행해 선정한다.

EV9은 이번 어워드 1차 심사를 통해 대형 크로스오버 부문 최고의 차에 올랐다. 각 부문별 최고의 자동차는 ▲현대차 아이오닉5(패밀리카 부문) ▲르노 클리오(소형차 부문) ▲볼보 EX30(소형

크로스오버) ▲피스커 오션(중형 크로스오버 부문) ▲BMW i5(임원진을 위한 차 부문) ▲혼다 시빅 타입 R(고성능차 부문) 등으로 EV9은 이들을 제치고 최종적으로 영국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영국 올해의 차 어워드 공동 회장 존 칼렌은 "이번 심사에서 심사위원 중 거의 절반이 EV9을 2024 영국 올해의 차로 선택했을만큼 매력과 신뢰감이 크다"며 "1회 중전 주행거리가 길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를 낮췄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는 미국에서 최고의 가정용 자동차로 선정됐다. 현대차 아이오닉5는 미국 월간지 페어런츠매거진이 주관하는 '페어런츠 2024 최고의 가족용 차 어워드'에서 '최고의 가족용 5인승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선정됐다.

페어런츠매거진 측은 "아이오닉5는 우수한 파워트레인(PE·구동모터, 감속기 등을 일체화한 모듈) 시스템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갖춰 가족용 차를 찾는 고객에게 탁월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 금호석화 "3년간 자사주 3779억 소각"

20일 자사주 87만 5000주 우선 소각  
"행동주의펀드 무관... 주주환원 최선"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주 절반을 3년에 걸쳐 소각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22일 정기주주총회 표 대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명 '조카의 난'으로 불리는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금호석화 지분 9.1%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가 올해 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와 손잡고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박 전 상무는 친척 관계인 박찬구 금호석화 명예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수년간 이어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262만4417주를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소각할 예정이다. 금호석화가 보유 중인 자사주는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8.4%인 524만8834주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을 향후 3년간 소각하겠다는 것이다. 소각하는 자사주는 지난 6월 종가 기준 3779억원 규모다. 금호석화는 오는 20일 자사주 87만5000주를 우선 소각할 예정이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금호석화 사외이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금호석유화학

사로 김경호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추천하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2년간 전량 소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차파트너스 측은 금호석화가 경영권 방어 목적을 자기주식을 처분했다고 분석한다. 이에 금호석화는 그동안 차파트너스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주주환원책을 실시해 왔다고 즉각 반박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회사는 단 한 차례도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를 목적으로 처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전 상무는 배당 확대, 경영진·이사진 변경을 주주 제안했지만

주주들의 표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사주 소각을 전면에 내세운 점에서 지난 경영권 분쟁과 차이가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어 차파트너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주주제안의 승자는 22일로 예정된 금호석화 정기 주주총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현재 금호석화 지분 구성을 보면 박찬구 회장과 아들 박준경 사장, 딸 박주형 부사장 지분을 합쳐 15.7%에 달한다. 박 전 상무 측은 모친 김형일씨, 장인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 차파트너스 보유 지분을 포함해 10.8% 수준이다. 박찬구 회장 측의 지분이 많지만 양측의 결핵 차이는 5%포인트 안팎에 그쳐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석유화학 시장 침체에도 금호석유화학은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HD현대마린솔루션, 친환경 선박개조 시장 개척

넵튠사와 엔진 최적화 서비스 계약

HD현대마린솔루션이 '선박엔진 최적화 기술'로 친환경 선박 개조시장 신규 개척에 나선다.

10일 HD현대마린솔루션에 따르면 최근 그리스 넵튠사와 자동차운반선 4척에 대한 '엔진 부분 부하 최적화(EPLO)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EPLO는 엔진 출력에 맞춰 터보차

저(과급기)를 교체 또는 개조하거나 연료 분사량 및 분사 시기, 연료-공기 혼합비 등을 조절해 연소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솔루션이다. 최대 킬로와트시(kWh)당 6g의 연비 개선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탄화 침전물 발생을 억제해 엔진 수명 연장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는 것이 HD현대마린솔루션의 설명이다.

앞서 HD현대마린솔루션은 엔진 터

보차저 분야 글로벌 리더 기업 액셀러론과 함께 '엔진 부분 부하 최적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지난해 10월 자동차운반선 1척을 첫 수주했고, 이번엔 4척을 추가 수주하면서 사업이 본격화에 올랐다는 평가다.

HD현대마린솔루션 관계자는 "시장 니즈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 솔루션으로 조선-해운 부문 탄소 감축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삼성, 상반기 공채... 19개 계열사 참여

국내 4개 그룹사 중 유일 공채 유지

삼성이 올해에도 대규모 공채를 이어간다. 이재용 회장이 '인재제일' 철학을 바탕으로 일자리 확대 의지를 이어가는 덕분, 조직문화 쇄신 작업도 현재 진행형이다.

삼성은 11일부터 올해 상반기 공채 일정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채는 19개 계열사가 함께한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글로벌리서치 ▲삼성웰스토리 등이다.

삼성은 18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에서 지원서를 접수 받고 ▲온라인 삼성직무적성검사 Global Samsung Aptitude Test(4월) ▲면접(5월) ▲건강검진 순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계

발이나 디자인 등 일부 직군의 경우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와 디자인 포트폴리오 심사를 병행한다.

삼성은 국내 4개 그룹사 중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를 도입해 '인재제일' 경영철학에 따라 능력 중심 인사를 구현해왔다. 1993년 국내 최초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 제도 신설과 1995년 학력을 조건에서 제외하는 등 차별 철폐에도 앞장서왔다.

고(故) 이근희 회장 '인재경영' 철학과 이를 이어받은 이재용 회장 역할이 컸다. 이 회장은 2021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고백하며,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해왔다. 인사제도 혁신과 산학 연계 과정을 운영하며 인재 확보에도 노력 중이다.

삼성은 그 밖에도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와 삼성드림클래스, C랩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용 기자